

제4장

청대 유학 연구

류희성(서강대학교)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청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청대 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우선, 명대 말기와 청대 초기의 전환기에 활동한 학자들을 어느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을 분기점으로 그 이후를 중국 근대로 본다. 그러므로 청대 유학의 범위는 청나라 건국(1616년)부터 아편전쟁까지로 보았으며, 명말·청초의 유학자도 청대 유학으로 포함하였다.

청대 유학의 연구는 시기의 제한 때문인지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2022년도의 학위논문은 없고, 연구 논문도 13편에 불과하지만, 2021년 10편, 2020년 3편보다는 많다. 13편의 논문 중에서 철학에 관련된 논문이 2021년 5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2편으로 대부분 철학 영역에 속하는 연구들이다. 또한 옹방강과 진학 등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있다.

13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 『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40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국문학연구』 제46호	국문학회
3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61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4	단운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東洋古典研究』 제88집	동양고전학회
5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기호남인 성호학파와 노론 북학파를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99집	大同哲學會

6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58집	한국동양철학회
7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우계문화재단
8	양충열	왕부지의 시가 해석학	『중국학연구』 제99호	중국학연구회
9	오걸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10	정빈나	18세기 청대 학술의 기원과 사상적 경향에 관한 고찰 -당대 유학의 내적 변화와 서학 의 도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제46집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11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인문과 예술』 제13호	인문예술학회
12	정빈나	청대 학술사에 나타난 유교 지식론의 사상 적 전환 -유학사상의 내적 자기운동의 측면 에서-	『태동고전연구』 제49 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3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철학논총』 제108집 제2권	새한철학회

위의 논문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인물과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인물별 분류

2022년도 발표된 청대 유학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왕부지 5편, 옹방강 1편, 대진 1편, 진학 1편, 기타 5편이다.

1) 왕부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40 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 소
2	단운진	王夫之和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 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東洋古典研究』 제88 집	동양고전학회
3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58집	한국동양철학 회

4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우계문화재단
5	양종열	왕부지의 시가 해석학	『중국학연구』 제99호	중국학연구회

다른 시기에 비해 연구성과가 적은 청대 유학 연구의 성과는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 세 학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가 많다. 왕부지와 관련된 논문은 2018년 4편, 2019년 5편, 2020년 2편, 2022년 5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왕부지에 관한 2022년도 연구성과를 보면,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 4편, 문학 1편이 있다. 특이한 것은 왕부지의 『중용』해석과 관련된 논문이 2편이라는 점이다. 김진근 선생은 주역 연구자, 특히 왕부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속해서 『주역』에 관련된 왕부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용』해석에 관한 비교 연구인 단윤진 선생의 논문도 주목을 끈다.

2) 옹방강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국문학연구』제46호	국문학회

옹방강(1733-1818)은 중국 청대의 유명한 서예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금석학자이다. 우리에게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스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옹방강은 탁월한 감식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였다. 김정희의 박식함에 놀란 옹방강은 자신의 서고를 보여주고 아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옹방강은 김정희에게 귀중한 탁본과 책 등을 선물로 주었으며, 추사의 생부인 김노경의 당호 ‘유당(酉堂)’을 친필로 써주기까지 하였다. 이후 옹방강과 김정희는 사승관계를 맺고 계속 교류하였다. 이런 점에서 김홍매 선생의 논문은 매우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3) 대진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인문과 예술』 제13호	인문예술학회

이른바 ‘청대철학’ 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학자로 명말·청초의 세 선생(왕부지·황종희·고염무)을 제외하고, 실용주의로 유명한 안이학파의 안원과 이공, 그리고 대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원과 이공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대진에 관한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다. 대진에 관한 논문은 2021년 2편 이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 동양철학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나마 2021년에 이어서 계속 대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정빈나 선생의 연구는 순수한 대진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4) 진확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걸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진확(1604-1677)은 명말청초의 철학자로서 명말의 위대한 유학자인 유종주(劉宗周)에게 사사받은 적이 있다. 그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학자로서 『대학』을 부정하고 『중용』을 의심하였으며, 송명유학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인성론에도 드러난다. 진확의 진보적인 철학은 이후 발전하는 청대의 실학을 이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학술계에선 중시되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지만, 실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진확의 철학을 고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정수덕의 『논어 집석』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61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기호남인 성호학파와 노론 북학파를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99집	大同哲學會
3	정빈나	18세기 청대 학술의 기원과 사상적 경향에 관한 고찰: 당대 유학의 내적 변화와 서학의 도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제46집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4	정빈나	청대 학술사에 나타난 유교 지식론의 사상적 전환 -유학사상의 내적 자기운동의 측면에서-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5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철학논총』 제108집 제2권	새한철학회

기타에 속하는 연구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이다. 위에 나열한 5편의 논문은 나름대로 모두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김희영 선생의 연구는 『논어』에 관한 여러 주석에 나타난 ‘군자’라는 개념을 살펴본 것이다. 박용태 선생의 논문은 명말 청초의 고증학과 조선 실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그다지 생소한 연구 분야는 아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빈나 선생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청대 관련 논문을 대진 논문을 포함해 3편 발표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타에 속하는 2편의 논문은 특정 인물이 아닌 청대 학풍 및 학술사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연구는 사실상 그리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정빈나 선생의 계속된 연구성과를 기대해 본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도 청대 유학과 관련된 국내 연구성과는 모두 13편이며, 그 가운데 철학연구에 속하는 것은 12편이다. 따라서 철학적

의미가 많은 논문을 선별해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한다.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 『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필자는 이 논문의 목적을 “왕부지의 困卦 『대상전』 풀이에 드러난 독특하고 독창적인 면과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君子觀의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왕부지는 곤괘 『대상전』 풀이에서 역대 제가의 풀이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풀이를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풀이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고, 이러한 풀이를 낳은 배경이 무엇이며, 그것에 드러난 군자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필자는 먼저 왕부지의 풀이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역대 제가의 『대상전』 풀이를 고찰하였고, 그 다음에 『주역내전』 『주역대상해』의 풀이를 차례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澤无水’는 ‘연못이 물을 없애버렸다’라고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군자에게 적용해 보면 이 곤괘가 상징하는 곤궁한 상황이 군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 하는 점이다. 둘째, 군자는 이 곤궁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고, 오히려 이 곤궁한 상황이 그의 뜻함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라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음의 세력들이 양이 상징하는 군자를 가리고 발호하는 세상에의 出仕와 이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왕부지가 왜 곤괘 『대상전』을 이렇게 풀이하는지 그 배경을 추적해 보았고, 아울러 이 풀이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의 군자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2)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필자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김정희가 살

있던 19세기의 청나라는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다. 김정희는 청나라를 방문하고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과 사승관계를 맺었고, 청대의 학술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김정희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청대 학술과의 영향관계가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정희의 고증학 경향을 보여주는 글로 평가되는 <실사구시설>을 중심으로 고증학에 대한 김정희의 관점을 옹방강과의 비교 및 청대 학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옹방강은 청대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한 시기에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고증학의 영향을 깊이 받기는 하였지만 청대 학술에서 그의 위치는 고증학 학자가 아니라 이학자이며, 고증학을 의리지학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고증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비판하고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희는 고증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훈고와 의리에 대한 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옹방강과 다르지 않다. 그의 <실사구시설>은 훈고를 중시하되 그것은 의리를 밝히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글이다. 또한 사승과 가학을 강조하면서 경전과 한대 학자인 정현(鄭玄)의 주석의 정통적 지위를 수호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실사구시적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증학보다는 성리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준다.

3)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청말민초에 살았던 정수덕의 『논어집석』에 근거해 유학의 이상적 인간이 ‘군자’ 개념을 고찰해 본 것이다. 우선, 필자는 『논어』 경문 가운데 ‘군자’가 출현한 문장을 발췌하여 그 가운데 정수덕의 『논어집석』에 수록된 한학의 대표인 『논어집해』, 송학의 대표인 『논어집주』, 명청대의

주석 가운데 참신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주석들을 통해 ‘군자’의 의미에 대해 해석학적 측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어』는 짧고 간결한 문장인 데 비하여, 비유와 상징이 많고, 또 역사적 배경이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고급 이래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논어』의 주석서가 출현하였다.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논어』 주석서 가운데, 중화민국 시기 출판된 정수덕의 『논어집석』은 서명(書名)처럼 ‘여러 학자들의 설을 분류·채집’하여 많은 주석을 모아놓은 책이다. 정수덕의 『논어집석』은 여러 학파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학문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주의적 관점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개방적 태도를 갖고 학문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학문적 태도이다. 전(前) 시대의 연구를 다양한 형태로 축적하였고, 풍부한 주석으로 훈고와 의리를 모두 밝혔다는 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논어』 경문 가운데 ‘군자’가 출현한 문장을 살펴보고 86개의 문장 가운데 정치적 위정자로 쓰인 문장과 도덕적 이상향으로 쓰인 문장으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몇 개의 경문을 발췌하여 해당 경문의 고주와 신주 외에, 명청대 주석가의 주해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군자가 정치적 위정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것과 도덕적 의미가 추가되거나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인 주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고주나 신주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본 명청대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이러한 연구는 매우 꼼꼼하고 각 시대별 해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4)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이 논문의 목적은 『中庸』 1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왕부지와 정약용의 주석을 고찰하고 비교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한·중 유학을

비교·고찰하는데 있다.

중용 1장에 있어서 첫째, ‘천’에 대한 관점에서 왕부지에게 ‘천’은 기가 쌓인 것으로 ‘천’은 비인격적이고 비주체적인 자연천이다. 정약용에게 ‘천’은 영명무형한 주재천으로 인격적인 상제천이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왕부지에게 ‘천’은 음양오행의 운동이며 음양오행은 본체인 동시에 작용이다. 정약용은 음양오행은 햇살이 비치거나 가릴 때 비릇되는 것으로 체질은 없고 명암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둘째, 왕부지는 ‘명은 법령’임을 강조한다. 정약용에게 ‘명은 도심’의 소리이다. 셋째, ‘성’에 있어서 왕부지는 성은 ‘생의 리’로 성즉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리’는 기의 리라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가 있다. 정약용은 ‘성은 기호’라 강조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천명지위성’이라는 같은 문장에서 각각 왕부지는 ‘명’에 정약용은 ‘성’에 중점을 둔 것은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命’과 ‘性’을 인간에게만 한정시켜 인간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된 견해이다. 넷째, 글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은 모두 선대의 고증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며 선대 유학자를 비판하고 인용한다.

왕부지는 송대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실천적인 중용 철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조선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정약용의 중용 해석도 역시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왕부지와 맥을 같이한다.

5) 오결,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필자는 국내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말 청초의 중요한 실학자로서 인성론 방면에 뛰어난 성취를 이룬 陳確(1604~1677)의 인간본성론에 관해 연구하였다. 진확은 맹자의 성선설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송대의 유학자가 인성을 천명의 성과 기질의 성 이원론의 방식에 반대하였으며 氣·情·才는

모두 성의 내용이고 악은 후천적 습관에서 비롯되며 ‘확충하여 재질을 다 함[擴充盡才]’ 을 통해 선의 필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논증에 있어서도 비교적 엄밀한 논리적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진확이 재건한 일원적 인성론은 위에서부터 陽明과 戴山 이어받고 아래로는 顏元和 戴震의 길을 터주었으며, ‘천리를 지키고 인욕을 없앤다[存理滅欲]’ 라는 도덕적 엄격주의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을 성취한다[達情遂欲]’ 라는 시대적 발전 조류도 구현하여 명청 시대의 학술 사조에서 매우 중요한 본보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진확의 인성론은 맹자보다 순자에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인지 순자 연구자들은 매우 중시한다.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 학자에 대한 연구는 학문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6)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목표는 대진(戴震)의 기철학적 사유체계에서 논의되는 욕구[欲], 감정[情], 지성[知] 3자의 관계를 해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情感, Emotion)의 의미와 역할을 체험주의의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대진의 ‘감정’ 을 체험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하려면 ‘감정’ 과 더불어 그의 상위개념인 혈기와 심지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대진의 ‘정’ 을 ‘실정’ 과 ‘감정’ 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정’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는 감정에 닿아 있다고 보았다. 뒤이어 혈기와 심지의 의미를 규명한 뒤 혈기와 심지를 구성하는 욕구와 감정과 지성 3자와 신체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욕구, 감정, 지성의 기반은 음양의 운동과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신체이며, 신체가 없이는 혈기와 심지 모두 존립할 수 없다는 대진의 전제에 기초한다. 혈기(신체적 성격)와 심지(지성적 성격)는 체험주의에서 말하는 물리적/신체적 층위의 경험과 추상적/정신적 층위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혈기라는 신체성으로부터 창발(emergence)된 결과물이 심지의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진의 기철

학적 사유에서 신체적 활동, 심리적 반응, 지성적 작용은 중첩적이고 연속적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 을 표방하는 체험주의적 사유와 친연성을 가진다.

필자 정빈나 선생은 아마도 청대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인 듯하다. 2021년에도 대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22년에는 무려 청대에 관한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청대철학에 대해 그리 많이 연구되지 않는 국내 학술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7)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이 논문의 목적은 유가 사상에서 공적 행위의 주체를 군자로 보고 공자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군자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논문의 제목처럼 큰 사상의 궤적을 살피기보다는 고대의 공자와 성리학 성립기의 주희, 전통이 변혁되던 명말 청초 시기의 황종희, 한국에서는 근대 시기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도덕적인 공적 책무의 주체였다. 군자는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전범으로 비도덕적인 소인과 구분되는 인간상이다. 송대에 오면 주희는 현실적 의미의 표상으로서 군자에 인간과 자연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결합한다. 모든 만물과 공생과 조화를 꾀하는 태도를 궁극적으로 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말청초 시기의 황종희는 기존의 도덕을 비판하며 새로운 공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근대 한국의 신채호는 황종희와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군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적 주체로 신국민과 민중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갖는 새로운 군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청대 유학 혹은 청대 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 범위가 좁다. 이런 까닭에 청대 유학에 관한 국내 연구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의 청대철학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도 연구대상과 주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근 10여년 동안 국내의 청대유학 또는 청대철학에 연구성과는 그리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평가나 전망을 내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이전의 말을 다시금 강조한다는 의미로 증언부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내 동양철학의 연구 경향을 개괄해 보면, 7·80년대는 선진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고, 90년부터 송·명대 철학의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 같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양명학 연구가 성행하여 국제양명학 학술대회도 매년 거행되고 그에 따라 양명학 연구자도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현대 신유학이 유행해서인지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대는 송명과 근현대에 끼인 시기라 그런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대의 철학이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다른 시기보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고증학적 사유·실사구시적 학문경향 등을 이끈 건가(乾嘉)학과와 안이(顏李)학과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천주실의·영언여작 등의 서학(西學)에 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청대에도 연구할 만한 다양한 사조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의 청대 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나 철학에 단절된 것이 없다면, 근대나 현대의 삶이나 생각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다양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